



강원중학교 양성우 교사

누구에게나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 같은 도시 춘천. 10월에 찾은 춘천에는 가을 색이 짙어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학생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강원중학교 교사 양성우 씨를 만났다.

“작년 7월쯤 한 신문사에서 왜 별을 보는데 대한 이유를 써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달달 둥근 달 쟁반같이 둥근 달’이라는 동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달이 남산 위에 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 정말 남산에 달 따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달이 남산 위에 없고 남한산성으로 도망쳤더군요. 결국 서울에서 달 잡는 것은 실패하고,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남달리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양성우 씨의 재미난 일화는 이후에도 이어진다.

달 따러 남산 가기

“중학교 과학 시간에 별자리를 배우는데, 늘 보던

북두칠성의 위치가 변해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 어떻게 북두칠성의 위치가 바뀌느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남으라고 하더군요. 밤이 되고 별자리를 보러 선생님과 밖으로 나가서 제가 본 북두칠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건 북두칠성이 아니고 페가수스자리였던 겁니다. 어린 마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 본격적으로 별자리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서는 망원경과 친해질 기회를 갖게 된다.

“교수님이 저의 이력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매뉴얼 하나를 꺼내주시더군요. 보니까 천체 망원경 매뉴얼이었습니다. 그걸 읽고 사용법을 익혀서 다른 학생들에게 별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날 밤을 새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서는 ‘별은 맨눈으로 봐도 보이고, 망원경으로 봐도 점이다. 달 말고는 볼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가게되었죠. 군대도 관측대대였습니다. 온갖 광학장비들이 널려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별과 함께라면 천문대 관리인도 마다 않겠다는 양성우 씨



그러나 이미 별은 '별 볼일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려서 별에는 관심을 끊은 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중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학교 과학실을 정리하던 어느 날, 포장도 뜯지 않은 망원경을 발견한 양성우 씨는 대학 시절 망원경을 다루었던 경험으로 학생들에게 별 보여주기를 시작한다.

“야간 자율 학습도 빠지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옥상에 올라가 별을 봤습니다. 학생들도 자율 학습 빼 먹는 재미에 호응이 컸습니다. 잡지에 나온 별자리와 천문 자료를 보고 공부하면서 목성도 보여주고 했죠. 그런데 한 학생이 토성이 어디 있다고 묻는 겁니다. 토성을 찾을 줄 몰랐던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망원경으로는 토성을 볼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죠. 어느 날 교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망원경을 보고 있는데, 토성인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봤는데, 정말 토성이더군요. 너무 창피해서 귀주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날의 충격이 이후 별에 깊이 빠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작은 망원경으로는 토성을 볼 수 없다

“학생들이 별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하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별을 학생들도 그렇게 좋아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별과 관련된 책들을 닦치는 대로 읽으면서 별을 공부했다. 그러나 한계는 있었다. 그러던 중 과학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천문 동호회 [별만세]에 가입하게 된다.

“천문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책에서는 배우지 못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별 보여 주는 행사도 하고,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별이 세 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양성우 씨는 방학에 더 바빠진다. 이곳 저곳으로 별 얘기를 들려주러 다니고, 학생들을 데리고 별을 보러 다닌다. 남은 며칠은 가족을 위한 시간이다. 이렇다 보니 집에 있는 날보다 밖에 있는 날이 더 많다고 한다.

“처음 별을 보기 시작한 10년 전보다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졌

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망원경 놓고 별 보여준다고 하면 힘들텐데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춘천에서 사람들에게 별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하면 망원경 들고 나올 분들이 대여섯 명은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춘천에 천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춘천시민천문대(cafe.daum.net/kwkaas)]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문대는 없지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라도 천문대를 갖고 싶은 소망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다분히 데모의 성격을 띤 카페입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천문대가 지어진다면 이 카페는 시에 통째로 줄 생각입니다. ‘천문은 지금 지어졌지만 춘천의 시민천문대는 2003년부터 존재했다’라고 얘기할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랍니다.”

천문 테마 파크를 꿈꾸며

지방에서 열리는 천문 행사에 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바로 양성우 씨가 학생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다.

“학생들에게 그런 문화를 많이 접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이 보고 배운 문화를 이곳 춘천에 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실 뒤편 책꽂이에는 천문을 비롯해 각종 과학 서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읽고 싶은 학생들은 언제나 빌려가 볼 수 있다. 교재를 사는 데 쓸 수 있는 비용이 생기면 10%는 반드시 책을 산다고 한다.

“어느 날 별을 좋아하는 한 학생이 자기는 경영학과를 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별을 좋아하면 천문학과를 가야지 왜 경영학과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영학을 전공해서 돈 많이 버는 방법을 배워 나중에 천문대를 짓겠다고 하더군요. 천문대 지으면 저를 관리인으로 써달라고 농담 삼아 부탁도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나중에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던 별을 바라보면 그 순수한 마음을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성우 씨의 꿈은 그 학생이 꿈꾸던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멋진 천문 테마 파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별을 찾고, 별과 함께 꿈을 키워가길 바랄 뿐이다.